

진안 소재 창작소설 '금척' 출간

김종록 작가, 역사가들이 놓친 근대 한국사의 비밀 파헤쳐

김종록 작가가 진안을 소재로 한 창작소설인 '금척(金尺)'(다산책방)을 출간했다. 작가는 진안 마이산에서 조선의 창업자 태조 이성계가 꿈속에서 왕권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금척을 받았다는 전설을 근대사의 일대 사건과 연계해 흥미로운 스토리로 엮어냈다.



김종록 작가가 진안을 소재로 한 창작소설인 '금척(金尺)'을 출간했다.

1909년 9월 15일자 샌프란시스코 교민신문 '신한민보' 3면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금척권총 삽화 한 장과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살한 그 다음날인 1909년 10월 27일자 러시아 신문 '노바야 지즈니'에 실린 28명의 독립투사 김두성의 지령을 받고 거행했다'는 기사를 버블러 456쪽의 장편 역사 실화소설로 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역사가들이 놓친 근대 한국사의 비밀을 파헤친 소설 '금척'은 열 번 패했으나 꼭 한 번은 크게 이기는 승리의 서사다. 보수도 진보도, 남한도 북한도 덮어두고 싶어 하는 부끄러운 근대사를 정면으로 다뤄 '독자로 하여금 민족혼을 일깨우고 자부심을 갖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작가가 출간일을 안중근이 거사를 단행한 10월 26일로 잡은 이유 또한 이런 역사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바로 안중근 의사가 만주

하얼빈역에서 단순한 권총이 아닌 금척단총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기 때문이다.

김종록 작가는 "나라는 빼앗겼어도 끝내 정복되지 않은 이들이 온 몸을 바쳐 써 내려간 국민전쟁의 역사가 일제 식민지 프레임이나 망국 책임론에 갇혀 매도되거나 희화화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금척을 소환하고 금척 정신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한다.

김 작가는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마이산과 운장산 자락에서 자랐으며 성균관대 대학원 한국철학과를 졸업, 한국학에 정통한 인문학자로도 많이 알려졌다. 일찍이 29세에 밀리언셀러 '소설 풍수'로 필명을 날린 김 작가는 선 굵은 서사에 풍부한 교양과 현란한 사유, 특유의

직관이 담긴 독보적인 글을 썼다. 저서로는 장편소설 '붓다의 십자가', '장영실은 하늘을 보았다', '달의 제국' 등이 있으며, 인문교양서 '근대를 산책하다', '한국문화대탐사', '공자, 잠든 유학을 깨우다', '바이칼', '현장 인문학' 등을 펴냈다. 문화국가연구소(주) 대표로서 한국학 문화콘텐츠 작업과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이번 소설 출간은 문화관광 자산의 소설 스토리텔링을 통해, 영화나 드라마와 같은 문화콘텐츠화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진안의 다양한 문화콘텐츠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사과 만나러 서울대공원으로 오세요”

9일부터 11일까지 장수사과 소비촉진 홍보행사 추진

장수군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대공원에서 장수사과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행사를 추진한다.

7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서울대공원 장수사과 홍보행사는 지난 2015년 서울대공원과 장수군의 '고향 숲 조성' 협약을 계기로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어 가을철 서울대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홍보행사는 장수사과와 가공식품 시식행사, 사과 빨리 깎기, 닥터던지기, 퀴즈 등 이벤트 행사와 장수농산물을 일료로 생산된 가공 상품 전시가 마련돼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

의 입과 눈을 즐겁게 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이번행사를 통해 맛과 품질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장수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식행사 등을 통해 잠재적 소비자들의 호감도를 높이는 등 장수사과 유통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서정원 소장은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최고의 맛을 가진 안전한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주말 많은 도시민들이 서울대공원을 찾아 장수사과를 맛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고원 바른몸 치유캠프 호평

진안군은 건강한 일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진안고원 바른몸 치유 캠프를 운영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처음 시작한 진안고원 바른몸 치유 캠프는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3박4일 동안 진행했다. 진안군보건소와 진안군의료원이 주관한 이번 캠프는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특화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생활습관질환자를 대상으로 40여명이 참여했다.

생활습관에 대한 전문교육과 사전·사후검에 대한 개별 맞춤 상담이 진행되고 진안고원 치유숲의 친환경 시설에서 자연식사와 노르딕워킹,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 등 건강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참여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참여자 김(45)씨는 "항상 운동해야지, 적당히 먹어야지 생각하지만 마음먹은 대로 실천하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이번 캠프에서 건강생활실천이 매우 중요함을 알았다"며 "주위의 많은 지인들에게도 홍보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제8회 장수군 지역아동센터 연합종합발표회 가 한누리전당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장수 지역아동센터연합 종합발표회 성황리

장수군이 주관하고 장수군지역아동센터연합회(회장 김영순)가 주최하는 '제8회 장수군 지역아동센터 연합종합발표회'가 최근 장수군 한누리전당에서 장수교육지원청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사회 장계목장 후원으로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날 종합발표회에는 1318페피존·다솜·대성·반암·산서·장수·한우리지역아동센터가 참여했으며 아동과 학부모, 시설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발표회와 2부 화합한마당으로 진행됐다.

특히 2부 화합한마당은 빙댄스와 단체줄넘기 등 아동·청소년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돼 큰 호응을 얻었다.

장영수 군수는 "아름드리 나무도 붓털 같은 새싹에서 자라고 구층 높은 집도 삼태기 흙부터 쌓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면서 "장수군은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아동들의 건전한 발달과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제5회 무진장 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지역발전 도모 친목 다져

제5회 무진장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7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무진장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는 무주와 진안, 장수군 공무원들이 체육활동으로 친목을 다지며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개최되고 있는 것으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무주군의회 유송열 의장, 이항로 진안군수와 진안군의회 신갑수 의장, 신달호 장수부군수와 무주군 공무원노동조합 황인동 지부장을 비롯한 세 지역 공무원 등 6백여 명이

참가했다. 오전 10시 개회선언과 함께 시작된 행사는 선수대표 선서 등 기념식과 킥링과 장애물달리기, 3인 3각, 풍선 타 쌓기 등 체육경기, 화합행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는 더불어 사는 무진장을 그리며 마음을 모으고 동력을 키우는 자리"라며 "우리의 열정이 뜨거워지는 만큼 군민행복도 커진다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항로 진안군수는 "무진장이 하나 됐으니 동부산악권의 발전을 이끌어 보자"라며 "이 자리가 공무원 서로와

지역을 이해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달호 장수부군수는 "반딧불이의 고장, 태권도성지 무주에 와서 기쁘다"라며 "무주에 모이진 무진장 지역 공무원들의 열기가 지역발전을 일구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어울림 한마당을 끝으로 행사를 마친 공무원들은 "한 해를 마무리 해가는 시점에서 지역의 공무원들이 만나 같이 운동도 하고 정보도 나누는 만큼 서로의 지역을 위해,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학생 4H회 과제활동 '호응'

진안군은 최근 미래 농업의 주역인 관내 5개 중·고등학교 학생 4H회원과 영농 4H회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제교육과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교육은 4H 이념(지, 덕, 노, 체)을 생활화하기 위한 교육과 함께 학생들이 직접 향이 나는 꽃을 넣어 정성스레 만든 향주머니 100여 개를

진안군 노인요양병원의 거동 불편 어르신들에게 전달했다.

과제활동에 참여한 한 학생은 "정성 들여 만든 향낭을 어르신들에게 드리며 따뜻한 정을 느꼈다"며 "다양한 4H 활동을 통해 주위의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ATV / 버기카
레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485-2)

대표 약력

일피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버머티 지역 취득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영국지리 요인 지역중 취득
국제대회 디스 참가 및 우승	레프팅 기어드 지역 취득
동계국제대회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중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스포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1/NSL2)취득	